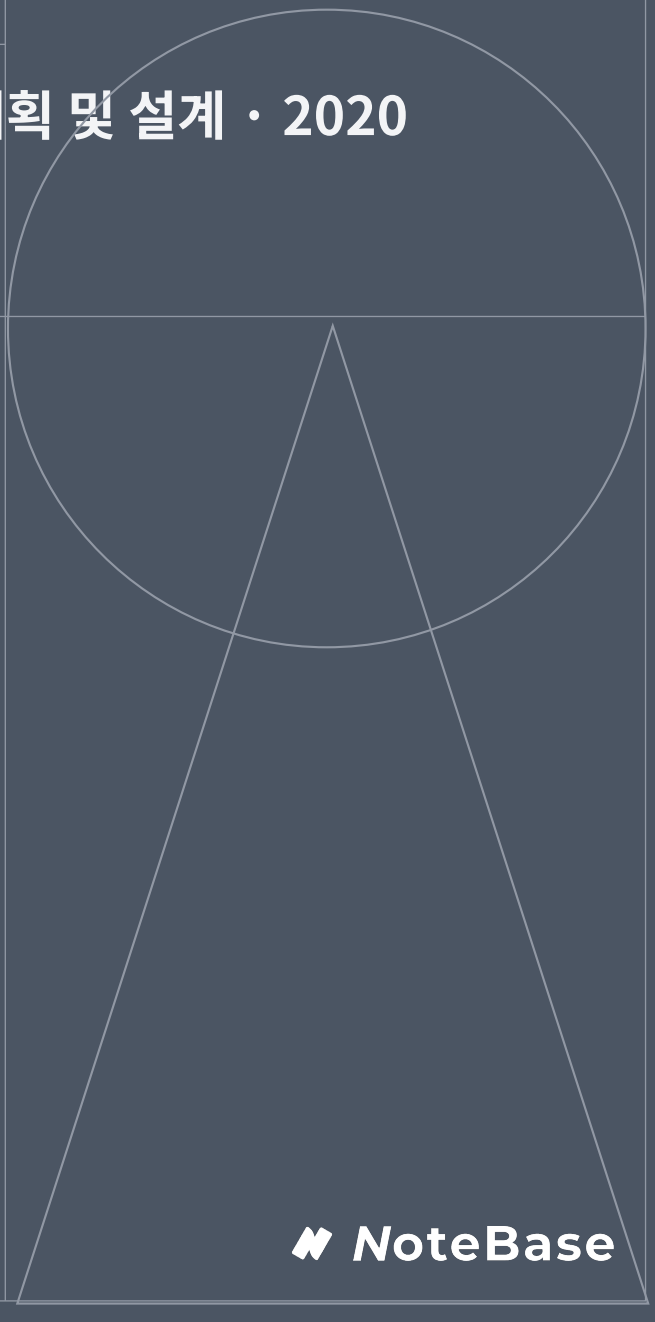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0

공무원/국가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0

문 1. 조경계획 과정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현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② 계획을 진행하면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본 방향이 재검토 또는 수정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③ 장기화될수록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의 위험부담 때문에 현실 지향적 속성을 띠게 된다.

④ 이해당사자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목표 수정, 조사대상 및 평가 방법의 재설정 등 피드백 과정이 수반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현실 지향적'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조경계획은 앞으로 실현할 바람직한 공간과 환경을 구상하는 **미래 지향적** 활동이며, 장기 예측의 불확실성은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경계획은 대상 공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대안을 찾는 과정이다. 현재의 환경과 이용 현황을 이해해야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상의 이해와 문제인식**이 출발점이 된다.

② O: 계획 초기에는 대상지와 이용 요구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와 분석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기존 방향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기본 방향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하는 **탄력성**이 필요하다.

③ X: 계획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측의 정확성이 낮아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타당하다. 그러나 조경계획은 현재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공간과 환경을 구상하므로, '현실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속성을 띤다. 불확실성에는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④ O: 이해당사자와 의뢰인의 요구는 계획 목표와 조사·평가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는 근거가 된다. 그 검토 결과를 앞선 단계에 되돌려 반영하는 것이 **피드백**이며,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거나 조사대상과 평가 방법을 재설정할 수 있다.

NoteBase

문 2. 조경 식재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생태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래수종보다는 국지적 생태 조건에서 적응이 유리한 향토수종을 선택한다.

② 변화된 배수 및 관개 조건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유목(幼木)보다는 노목(老木)을 우선 선택한다.

③ 자연군락 내 식물종과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주변의 종 구성과 유사한 형태의 식재방식을 적용한다.

④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원 방안 모색 등 식재 및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유목보다는 노목을 우선 선택한다'는 설명이 반대이다. 일반적으로 **노목보다 유목**이 이식 후 뿌리를 회복하고 변화된 배수·관개 조건에 적응하는 데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향토수종은 해당 지역의 기후·토양·수분 조건에 적응해 온 수종이다. 따라서 대상지의 생육 조건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택하면 **지역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② X: 변화된 배수·관개 조건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려면 일반적으로 **노목보다 유목을 우선 선택**한다. 유목은 이식 후 뿌리를 재생하고 새로운 생육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유리한 반면, 노목은 뿌리 기능 회복과 활착에 더 긴 시간이 걸리기 쉽다. 활착은 식재한 나무가 뿌리를 내려 새 장소에 정착하는 것을 뜻한다.

③ O: 식물은 개별적으로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식물과 빛·수분·양분을 두고 경쟁하거나 함께 군락을 이룬다. 따라서 **종 사이의 상호관계와 주변 군락의 종 구성**을 고려하여 식재하면 기존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식생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O: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식재계획은 식물이 대상지에서 스스로 생육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역 환경과 자연적인 식생 회복을 고려한다. 이에 맞는 수종과 식재방식을 선택하면 잦은 관수·시비·고사목 교체 등의 필요를 줄여 **장기적인 식재·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NoteBase

문 3. 시각적 복잡성(visual complex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은 보통 중간 정도의 자극을 선호하며, 환경에 맞는 적정수준(optimal level)의 복잡성을 요구한다.

② 시각적 복잡성과 경관 만족도 사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정량화한 것으로 이는 기호학적 경관분석의 결과이다.

③ 도시경관은 농촌경관보다, 상업지역 경관은 주거지역 경관보다 높은 수준의 시각적 복잡성을 요구한다.

④ 경관의 복잡성 정도는 심리적으로 시계(視界) 내에 존재하는 '경관 구성요소의 많고 적음'에 비례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시각적 복잡성을 독립변수로, 경관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두어 둘의 관계를 정량화하는 것은 **정신물리학적 경관분석**이다. 기호학적 경관분석은 경관에 담긴 의미와 상징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극이 너무 적으면 단조롭고, 지나치게 많으면 혼란스럽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은 보통 양극단보다 **환경에 맞는 적정수준의 복잡성**을 선호한다. 이 적정수준은 모든 장소에서 동일한 고정값을 뜻하지 않는다.

② X: 경관의 물리적 특성과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 사이를 계량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정신물리학적 경관분석**이다. 이 설명에서는 시각적 복잡성이 독립변수이고, 경관 만족도가 종속변수이다. 따라서 '기호학적 경관분석'을 '정신물리학적 경관분석'으로 고쳐야 한다. 기호학적 분석은 경관 요소가 전달하는 의미나 상징을 해석하는 접근이다.

③ O: 선지의 '요구한다'는 각 환경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선호하는 적정 복잡성의 차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경관은 농촌경관보다, 상업지역 경관은 주거지역 경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이 기대된다. 도시와 상업지역의 다양한 활동과 시각 정보에는 비교적 높은 자극수준이 어울리기 때문이다. 다만 복잡성을 무한히 높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시각적 복잡성은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과 관련된다. 시계 안에 건물·수목·간판 등 **구성요소가 많고 다양할수록** 처리할 시각 정보가 늘어나 복잡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비례한다'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복잡하게 지각하는 경향을 설명한 것이며, 정확한 수학적 정비례식을 뜻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4. 계획 및 기본설계 과정에서 표현되는 개념 다이어그램(diagram)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계획 및 설계개념상의 주요 기능과 공간 등의 요소를 표현한다.

② 버블(bubble)이나 윤곽선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③ 도면상의 축척(scale)과 방위가 일치하도록 표현한다.

④ 공간 간의 맥락과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개념 다이어그램은 주요 기능과 공간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나타내므로, **도면과 축척·방위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정확한 치수 재현보다 공간의 연결과 배치 개념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O: 개념 다이어그램은 계획·설계에서 구상한 **주요 기능과 공간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다. 휴게·놀이·이동 등의 기능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연결할지 검토하는 데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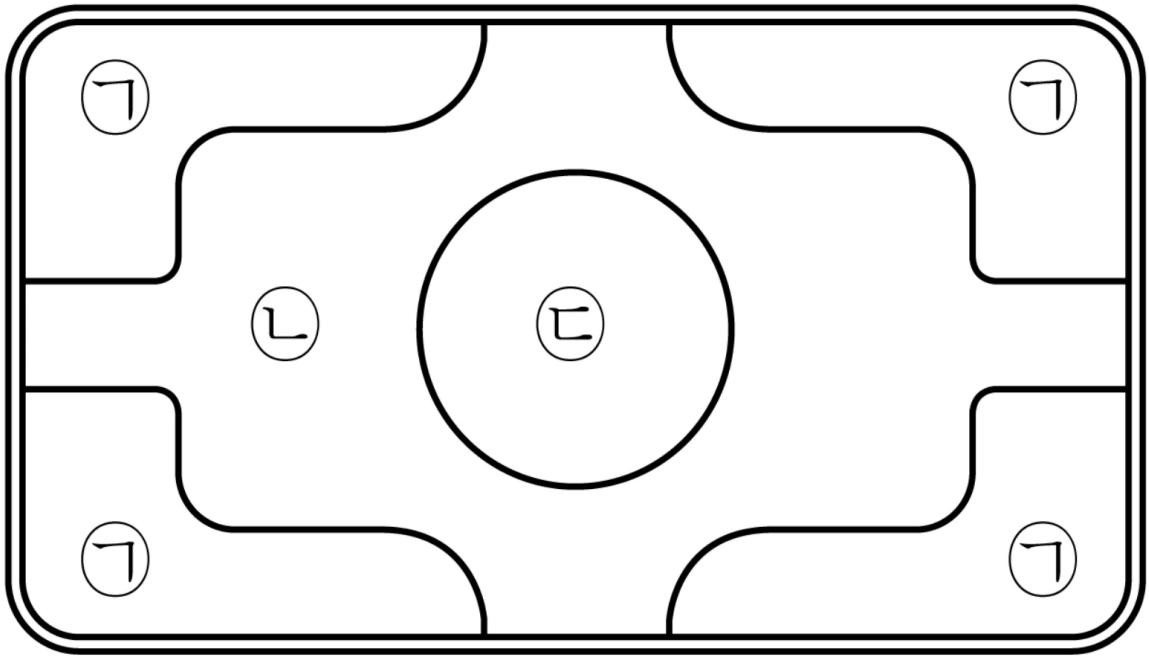
② O: 공간을 버블이나 단순한 윤곽선으로 표시하여 각 공간의 범위와 대략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때의 선은 **공간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최종 설계의 정확한 경계나 형상을 확정하는 선은 아니다.

③ X: 개념 다이어그램은 공간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적 표현이므로 **축척과 방위의 엄밀한 일치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 실제 부지의 방향이나 대략적인 공간 크기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도면과는 표현 목적이 다르다.

④ O: 개념 다이어그램은 공간의 인접·분리·연결 관계를 쉽게 파악하도록 표현한다. 예를 들어 함께 이용할 공간을 가까이 놓고 이동 경로를 연결해 나타내면 **공간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이해하기 쉽다.

NoteBase

문 5. A시에서는 봄맞이 준비를 위해 가로공원에 그림과 같은 춘계화단을 조성하고자 한다. ㉠에는 1~2년생 초화류, ㉡에는 구근(알뿌리) 식물, ㉢에는 정형의 상록수를 심고자 할 때, 조건에 맞는 배식(配植)은?



① ㉠: 데이지, ㉡: 다알리아, ㉢: 화살나무

② ㉠: 과꽃, ㉡: 프리뮬러, ㉢: 반송

③ ㉠: 메리골드, ㉡: 수선화, ㉢: 주목

④ ㉠: 프리뮬러, ㉡: 크로커스, ㉢: 반송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프리뮬러는 봄 화단에서 1~2년초로 이용하고, 크로커스는 봄에 꽃피는 구근류이며, 반송은 둥근 수관을 이루는 상록침엽수이다. **식물의 분류와 봄맞이 화단의 계절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배식이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그림의 네 모서리인 ㉠에는 봄 화단용 1~2년생 초화류를, 중앙 원형 구역을 둘러싼 ㉡에는 구근식물을, 중앙의 ㉢에는 정형의 상록수를 배치한다. 각 위치의 식물 분류뿐 아니라 봄맞이 화단이라는 이용 목적도 충족해야 한다.

㉠ 프리뮬러: 봄에 꽃을 감상하는 초화로, 화단 재배에서는 **1~2년초로 취급하는 원예적 이용 분류**를 적용한다. 본래 다년생인 종류까지 모두 생물학적 1~2년생이라는 뜻은 아니다. 데이지도 봄 화단용으로 이용하며, 과꽃과 메리골드 역시 1년초에 속한다. 다만 메리골드는 추위에 약하고 주로 여름~가을 화단에 이용하므로, 이 문항에서는 봄맞이 초화인 프리뮬러와 구별한다. 이는 통상적인 계절별 이용 기준에 따른 구분이며, 메리골드가 봄에 전혀 개화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 크로커스: 봄 화단에 이용하는 크로커스는 이른 봄에 꽃피는 구근식물이다. 양분을 저장하도록 땅속줄기가 굵어진 구경을 가지며, **구근류에는 굵어진 뿌리뿐 아니라 줄기에서 발달한 저장기관도 포함**된다. 수선화와 다알리아도 구근류에 속한다. 반면 프리뮬러는 구근류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②처럼 ㉡에 배치하면 조건에 맞지 않는다.

㉢ 반송: 가지가 여러 갈래로 퍼져 둥근 우산 모양의 수관을 이루는 상록침엽수로, 중앙에 정형의 상록수를 배치하려는 조건에 맞는다. 화살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이므로 ①의 배식은 상록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주목 역시 상록침엽수이므로, ③을 배제하는 핵심은 주목의 상록성이 아니라 ㉠ 메리골드의 계절적 이용 차이에 있다.

따라서 봄맞이 화단의 통상적인 이용 기준과 세 위치의 식물 분류를 함께 충족하는 배식은 ㉠ 프리뮬러, ㉡ 크로커스, ㉢ 반송인 ④이다.

NoteBase

문 6. 동선설계 시 도입되는 옥외 계단 및 경사로(ramp)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행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단을 설치한다.

②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채용하고, 평탄하게 마감한다.

③ 경사로는 주동선에 일치하도록 배치하여 보행자들이 이동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계단의 구배는 30⨯35°가 적합하며, 단위 계단의 높이(h)와 답면 너비(b)의 관계는 2h+b=60⨯65 cm로 설계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15% 초과'는 **'18% 초과'**로 고쳐야 한다. 급경사에서 연속된 비탈면을 그대로 걷게 하면 보행이 어려워지므로 계단을 설치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조경동선시설 설계기준의 옥외계단 배치 기준은 경사가 **18%를 초과하는 경우** 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다. 선지의 '15%'는 '18%'로 고쳐야 한다. 계단은 급한 비탈면을 수평의 디딤면과 일정한 단높이로 나누어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시설이다.

② O: 경사로는 높이가 연속적으로 변하므로 바닥이 미끄러우면 보행자나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발이나 바퀴가 걸리는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마감한다. 여기서 평탄한 마감은 경사로를 수평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표면의 불규칙한 굴곡과 단차를 없앤다는 뜻이다.

③ O: 경사로는 **주동선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치하여 이동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주동선에서 떨어진 곳에 경사로를 두면 이용자가 본래의 이동경로를 벗어나 우회해야 하므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아진다.

④ O: 계단의 구배는 일반적으로 30⨯35° 정도를 기준으로 계획하며, 단높이 h와 답면 너비 b는 보폭을 고려하여 $2h + b = 60 \sim 65$cm의 관계로 설계한다. h는 한 단을 오를 때의 수직 높이이고, b는 발을 딛는 면의 진행방향 수평 너비이다. 이 관계는 **단높이가 커지면 답면 너비를 줄이고, 단높이가 작아지면 답면 너비를 늘리는** 치수 조합을 뜻한다.

NoteBase

문 7. 조선시대 서원(書院)의 공간구성 원리와 입지 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당 중심의 강학(講學)공간, 사당 중심의 제향(祭享)공간과 누대와 연지 등 유식(遊息)공간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② 19세기 후반부터 유식 기능이 강조되면서 공간배치가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③ 서원의 입지는 산수 풍광이 탁월한 곳을 택하여 자연물을 명명(命名)하는 등 성리학적 자연관을 반영하였다.

④ 원내 도입식물은 성리학자의 출처관(出處觀)이나 자연을 통하여 심성을 바르게 하려는 심성론(心性論)과 관련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유식은 자연을 즐기며 심신을 쉬게 하는 기능으로, **초기 서원부터 강학과 연결되어 중시**되었다. 후기로 갈수록 제향의 비중이 커지고 유식 공간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므로, '19세기 후반부터 유식 기능이 강조되어 배치가 복잡해졌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서원은 학문을 배우고 토론하는 강학 공간, 선현의 학덕을 기리는 제향 공간, 자연을 감상하며 쉬는 유식 공간으로 구성된다. 각각 강당, 사당, 누대·연지와 연결되며, **학습·추모·휴식이 수양의 과정으로 결합**한다.

② X: 유식 기능은 19세기 후반에 새롭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초기 서원부터 강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자연을 감상하며 학문의 긴장을 풀고 다시 공부에 힘쓰도록 하는 기능이다. 오히려 **17세기 이후 제향이 중시되면서 유식 공간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의 유식 기능 강화로 공간배치가 복잡해졌다는 설명으로 서원의 변화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③ O: 성리학에서는 자연을 인간의 수양과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따라서 서원은 산수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주변의 바위·계곡 등에 이름을 붙여 **자연경관에 학문적·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자연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위도 수양의 일부가 된다.

④ O: 출처관은 벼슬에 나아가거나 물러나 살아갈 때 지켜야 할 태도와 기준에 관한 관점이고, 심성론은 마음과 본성을 바르게 기르는 문제와 관련된다. 서원에서는 식물의 속성에 지조·절개 같은 덕목을 연결하고 이를 보며 자신을 성찰하였다. 이처럼 식재에는 **삶의 태도와 심성 수양을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NoteBase

문 8. 조선시대 별서의 입지와 공간구성을 참고하여 별장을 계획하려고 한다. 조선시대 별서로 분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례 운조루 ㄴ. 양산 소한정
ㄷ. 달성 하엽정 ㄹ. 강릉 선교장
ㅁ. 대전 남간정사 ㅂ. 화순 임대정 원림

① ㄷ, ㅁ
② ㄴ, ㅁ, ㅂ
③ ㄱ, ㄴ, ㄹ, ㅂ
④ ㄱ, ㄷ, ㄹ, ㅁ, ㅂ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별서는 일상적인 살림집과 별도로 자연 속에 마련하여 **은거·휴양·학문 수양** 등에 이용한 공간이다. 정자와 연못이 있더라도 하엽정처럼 **살림집에 딸린 별당과 정원**은 이 문항의 별서와 구별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별서정원은 주된 살림집과 별도로 조성하여 자연을 즐기고 심신을 수양하는 공간이다. 주택정원에도 정자와 연못이 있으므로, 시설의 유무뿐 아니라 주거공간과의 관계 및 이용 목적을 함께 구분한다.

ㄱ. 구례 운조루: 주택정원이다. 안채·사랑채·행랑채·사당채 등을 갖춘 **양반가의 살림집**을 중심으로 마당과 정원이 구성되어 있어, 별서로 분류하지 않는다.

ㄴ. 양산 소한정: 별서정원이다. 우규동이 계곡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정자와 정원을 마련하고 별장처럼 이용한 곳이다. 다만 조영 시기는 1920년경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문항에서는 조선시대에 발달한 **전통 별서정원의 유형을 계승한 사례**로 이해한다.

ㄷ. 달성 하엽정: 주택에 딸린 별당정원이다. 삼가헌 고택의 안채 서쪽에 자리한 별당과 그 앞의 연못으로 구성된다. **고택의 주거영역에 부속된 정원**이므로, 자연 속에 따로 마련한 별서정원과 구별한다.

ㄹ. 강릉 선교장: 주택정원이다. 안채·사랑채·별당·행랑채 등을 갖춘 **상류층의 주거공간**이다. 활래정과 연못이 있어도 선교장 전체의 성격은 살림집을 중심으로 한 주택정원이다.

ㅁ. 대전 남간정사: 별서정원이다. 송시열이 자연 속에서 **강학과 학문 수양**을 하던 곳으로, 산기슭의 계곡과 연못을 건물에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계곡물이 대청 아래를 지나 앞의 연못으로 흐르게 한 점이 특징이다.

ㅂ. 화순 임대정 원림: 별서정원이다. 민주현이 정자를 짓고 수림과 연못을 가꾸어 **은거·교류·강학**의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자연지형과 주변 경관을 활용하여 조성한 전통 별서정원의 사례이다.

별서정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ㄴ·ㅁ·ㅂ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조경 설계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용후평가는 제4세대 설계방법론으로 분류되며 순환적 과정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② 제1세대 방법론의 보편적인 계획과정은 '목표 설정－자료수집－분석－종합－기본계획 작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③ 3세대 설계방법론은 예측과 반박을 통해 설계자의 우월성이 배제되는 특성을 보인다.

④ 참여설계 과정에서 설계자는 전문가가 아닌 조절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제3세대 설계방법론은 예측과 반박으로 설계안을 검증하면서도 **설계자의 전문성과 설계안 제안 역할을 인정**한다. '설계자의 우월성이 배제된다'는 표현은 제2세대 참여설계의 특징과 혼동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용후평가는 완공된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용자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제4세대 설계방법론은 이 평가 결과를 공간 개선이나 다음 설계에 **다시 반영하는 순환적 과정**을 중시한다. 실제 이용에서 드러난 문제를 설계에 되돌려 반영하므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② O: 제1세대 방법론은 설계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안을 종합하는 합리적 접근을 중시한다. 목표를 설정한 뒤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공간 구성안으로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따라서 **목표 설정 → 자료수집 → 분석 → 종합 → 기본계획 작성**은 그 보편적인 계획과정에 해당한다.

③ X: 제3세대 설계방법론의 예측과 반박은 설계자가 제안한 안을 잠정적인 해결안으로 두고, 비판과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설계자의 전문성과 설계안 제안 역할은 인정**되므로 '설계자의 우월성이 배제된다'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설계자의 일방적 우월성을 배제하고 참여자 사이의 조정을 강조하는 것은 제2세대 참여설계의 특징이다.

④ O: 참여설계에서는 이용자와 주민도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설계 과정에 참여한다. 설계자는 전문지식으로 혼자 결론을 정하기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연결하고 합의를 돕는 **조절자·조정자**의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가 아닌'이라는 표현은 전문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전문가의 일방적인 결정 대신 참여와 조정을 강조한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만을 모두 고르면?

가. 도시지역
나. 관리지역
다. 농업지역
라. 임업지역
마. 자연환경보존지역

① 가, 나
② 가, 나, 마
③ 가, 다, 라
④ 다, 라, 마

정답 1번

가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23.5.16>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나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23.5.16>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NoteBase

다

농업지역이라는 별도 용도지역은 없으며,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23.5.16>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임업지역이라는 별도 용도지역은 없으며,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23.5.16>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법정 용도지역의 명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23.5.16>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NoteBase

문 11. 수고 6.0m, 수관폭 4.0m이며 흉고직경과 근원직경은 각각 15cm, 20cm인 느티나무에 대한 배식평면도상 규격표기로 옳은 것은?

① H 6.0 × W 4.0

② H 6.0 × B 15

③ W 4.0 × B 15

④ H 6.0 × R 2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느티나무의 규격은 **수고 H와 근원직경 R**을 조합하여 나타낸다. 수고 6.0 m와 근원직경 20 cm를 적용하면 H 6.0 × R 20이 된다.

핵심 풀이

느티나무의 배식평면도상 규격은 **수고 × 근원직경**으로 나타낸다. H는 지표면에서 나무 꼭대기까지의 높이인 수고이며 단위는 m이다. R은 줄기가 지표면과 만나는 부위의 굵기인 근원직경이며 단위는 cm이다.

B는 가슴 높이에서 측정한 줄기 굵기인 흉고직경이고, W는 가지와 잎이 이루는 수관의 폭이다. **B와 R은 측정 위치가 다르므로** 주어진 흉고직경 15 cm를 근원직경 20 cm 대신 사용할 수 없다. 수관폭 4.0 m를 나타내는 W 4.0도 근원직경을 나타내는 값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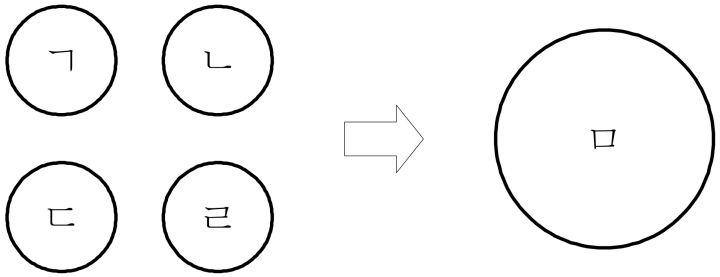
따라서 수고 6.0 m는 H 6.0, 근원직경 20 cm는 R 20으로 옮겨 H 6.0 × R 20으로 표기한다. 여기서 ×는 두 규격을 연결하는 기호이며, 두 수치를 곱하라는 뜻이 아니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생태이론은?

○ 도심부에서 부족한 녹지(綠地)를 확보하기 위해 녹지로의 전환이 가능한 부지(ㄱ ~ ㄹ)를 확보하였다.

○ 그러나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작은 녹지보다는 하나의 큰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향후 합쳐진 단일 녹지(ㅁ)를 만들기로 계획하였다. (단, 녹지의 총량은 같다)



① 다이아몬드이론(Diamond theory)

② 가장자리효과(Edge effect)

③ 알리효과(Allee effect)

④ 경쟁배제원리(Competitive exclusion principle)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녹지의 총면적이 같을 때, 흩어진 여러 작은 녹지보다 **하나의 큰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생물종 보전에 유리하다는 다이아몬드의 보호구역 설계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핵심은 녹지 면적의 증가가 아니라 **분산된 녹지의 통합**이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ㄱ·ㄴ·ㄷ·ㄹ: 각각 작은 녹지로 전환할 수 있는 부지이며, 그림 왼쪽에 서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누어 조성하면 각 녹지가 제공하는 연속된 서식공간은 작다. 다이아몬드는 작은 서식지에서는 유지되는 개체군의 규모도 작아져, 개체 수 변동에 따른 **국지적 멸종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ㅁ: 분산된 부지를 통합하여 조성하려는 하나의 큰 녹지이다. ㄱ·ㄴ·ㄷ·ㄹ의 면적을 합한 것과 ㅁ의 면적은 같다. 다이아몬드는 서식환경이 비슷하다는 조건에서 같은 면적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기보다 **큰 연속 서식지로 확보**하면 종의 존속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도식에서 중요한 변화는 녹지 총량이 아니라 개별 녹지의 규모와 분산 여부이다.

다른 이론과의 구분: 가장자리효과는 서로 다른 서식지가 만나는 경계부에서 나타나는 생태적 변화를, 알리효과는 개체군의 밀도가 너무 낮을 때 생존·번식에 불리해지는 현상을 다룬다. 경쟁배제원리는 같은 제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생태적 지위가 동일한 두 종이 안정적으로 공존하기 어렵다는 원리이다.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은 경계부의 특성이나 개체군 밀도, 종간 경쟁이 아니라 **같은 총면적을 가진 녹지의 분할·통합 방식**이다.

ㄱ·ㄴ·ㄷ·ㄹ을 분산된 작은 녹지로 조성하는 대신 단일 녹지 ㅁ으로 통합하는 계획은 ① 다이아몬드이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3. 전통적 설계 방식으로써 풍수지리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이자 자연환경 활용을 위한 기계론적 자연관이다.

② 자연이 가진 기본 형세(形勢)에 대한 경험적 이론을 집대성한 패러다임이다.

③ 부족한 자연의 형국(形局)을 보완하는 방편으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④ 현대의 적지분석기법에 대응시켜서 설명되거나 이해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기계론적 자연관'이 잘못되었다. 풍수지리는 산·물·방위와 인간을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자연의 형세에 맞추어 조화로운 삶터를 찾는 **유기체적 자연관**에 바탕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X: 풍수지리는 자연을 인간이 이용하는 도구나 기계로만 보지 않고, 산·물·방위와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전체로 이해한다. 따라서 '기계론적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산줄기의 흐름, 주변 산의 배치, 물길과 방향 등 자연의 형세를 관찰하고, 어떤 터가 생활에 유리한지에 관한 경험을 체계화하였다. 여기에 음양오행 등의 해석 체계가 결합되어 전통적인 입지 판단의 틀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자연 형세에 대한 경험적 이론의 집대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O: 자연의 형국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보완하려고 사찰이나 탑 같은 인공 구조물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를 **비보(裨補)**라고 한다. 자연의 형세를 살피고 그 결함을 보완한다는 취지이므로,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O: 적지분석은 토지의 여러 조건을 검토하여 특정 이용에 적합한 장소를 판단하는 기법이다. 풍수지리도 지형·물길·방향 등 환경 조건을 살펴 삶터나 건물의 위치를 정한다는 점에서 **환경 조건을 평가하여 적합한 입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시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풍수의 기·길흉에 관한 해석까지 현대의 과학적 분석과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4.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평행주차형식의 주차장 설계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형은 너비 1.5 m 이상, 길이 5.0 m 이상

②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에서는 너비 2.0 m 이상, 길이 5.0 m 이상

③ 이륜자동차 전용은 너비 0.7 m 이상, 길이 2.0 m 이상

④ 경차 전용은 너비 1.5 m 이상, 길이 4.0 m 이상

정답 2번

①

평행주차형식의 일반형 주차구획은 **너비 2.0 m 이상, 길이 6.0 m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pgimj8-KJ0ZatBIU4z7tMp75GXz4f5L7.webp

②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의 평행주차구획은 **너비 2.0 m 이상, 길이 5.0 m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pgimj8-KJ0ZatBIU4z7tMp75GXz4f5L7.webp

NoteBase

③

평행주차형식의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은 **너비 1.0 m 이상, 길이 2.3 m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pgimj8-KJ0ZatBIU4z7tMp75GXz4f5L7.webp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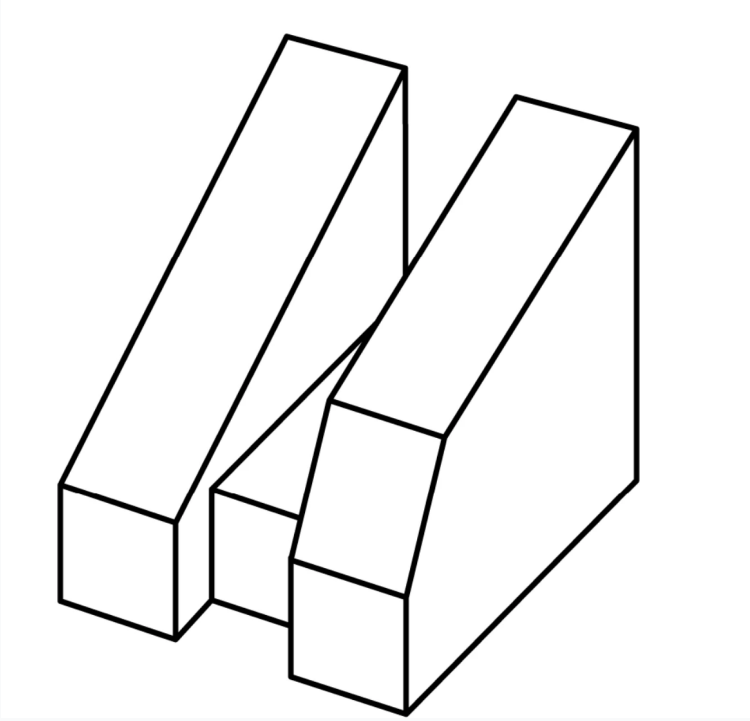
평행주차형식의 경형 주차구획은 **너비 1.7 m 이상, 길이 4.5 m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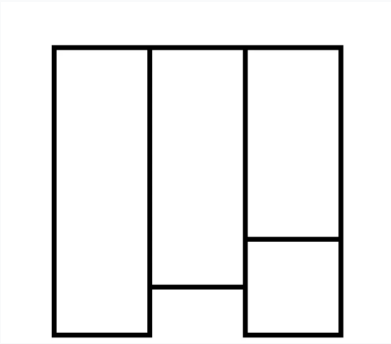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pgimj8-KJ0ZatBIU4z7tMp75GXz4f5L7.webp

Note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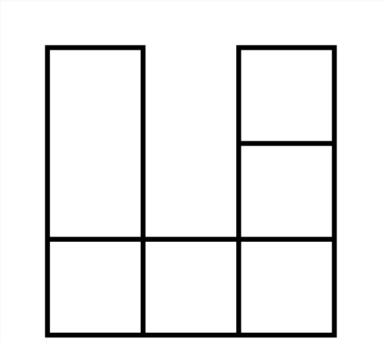
문 15. 그림은 휴양단지 내 조각공원에 설치할 환경조형물의 외형이다. 정투상법의 원리에 따라 제3각법으로 제도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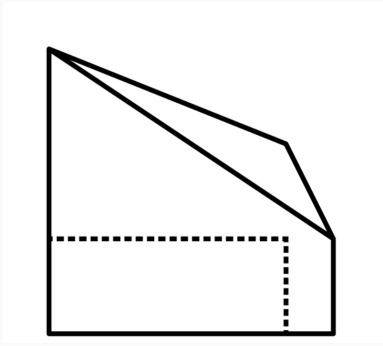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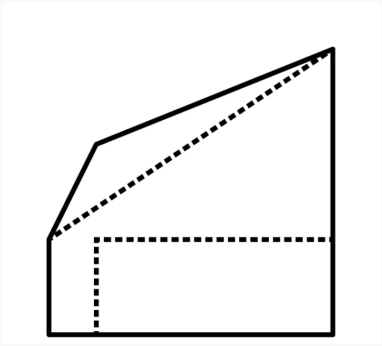


NoteBase

③



④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오른쪽 부재의 경사가 바뀌는 모서리와 가운데 연결부의 앞 모서리는 **앞뒤 방향의 위치가 같다**. 따라서 위에서 본 평면도에서는 두 가로선이 같은 선상에 놓여야 하는데, ①은 서로 어긋나게 그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정투상도는 물체를 각 투상면에 수직인 방향에서 본 모습이다. 평면도에는 너비와 깊이, 정면도에는 너비와 높이, 측면도에는 깊이와 높이가 나타난다.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다른 부분에 가려진 모서리는 파선으로 표시한다.

① X: 평면도에서 오른쪽 부재의 경사가 바뀌는 가로선이 가운데 연결부의 앞끝을 나타내는 가로선보다 뒤쪽에 그려져 있다. 원형에서는 두 모서리가 앞끝에서 같은 거리만큼 들어가 있으므로, 오른쪽 가로선을 **가운데 가로선과 같은 깊이의 위치**로 옮겨야 한다. 제시된 그림에서는 오른쪽 가로선을 아래쪽으로 내려 가운데 가로선의 연장선에 맞춘다.

② O: 정면에서 보면 뒤쪽까지 높게 올라가는 좌우 부재와 낮은 가운데 연결부가 겹쳐 U자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쪽의 가로선은 좌우 부재의 앞면 윗모서리와 가운데 연결부의 윗면 높이를 나타낸다. 오른쪽 부재에는 경사가 한 번 바뀌는 모서리가 있으므로 **오른쪽에만 위쪽 가로선이 하나 더** 나타난다.

③ O: 좌측면도에서는 높은 뒤쪽이 왼쪽, 낮은 앞쪽이 오른쪽에 놓인다. 가까운 왼쪽 부재의 곧은 경사 모서리는 보이고, 그보다 위로 드러나는 오른쪽 부재의 꺾인 윤곽도 보이므로 실선으로 나타낸다. 가운데 연결부는 왼쪽 부재에 가려지므로 **연결부의 수평·수직 모서리를 파선**으로 표시한 것이 맞다.

④ O: 우측면도에서는 낮은 앞쪽이 왼쪽, 높은 뒤쪽이 오른쪽에 놓인다. 가까운 오른쪽 부재의 꺾인 경사 모서리가 바깥 윤곽이 된다. 반대편 왼쪽 부재의 곧은 경사 모서리는 오른쪽 부재에 가려지므로 **대각선을 파선**으로 나타내며, 가운데 연결부의 가려진 모서리도 파선으로 표시한다.

NoteBase

문 16.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③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④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정답 4번

①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점용허가 대상**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자기 소유의 논 · 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처럼 법령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경미한 행위로 허가가 면제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 · 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NoteBase

②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하여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③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점용허가 대상**이다. 나무를 베지 않고 심기만 하는 행위 등 별도로 정한 경미한 행위에 한하여 허가가 면제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NoteBase

④

나무를 베지 않고 심기만 하는 행위는 **점용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NoteBase

문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제공원은 도시민의 생활권공원 외에 특정 주제를 모티브로 조성되는 공원이다.

② 생활권공원은 근린생활의 거점으로 커뮤니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분류된다.

③ 연결녹지는 너비 10 m 이상, 녹지율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④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10년마다 관할구역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정답 1번

①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역사공원·문화공원·체육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 · 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 · 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NoteBase

②

생활권공원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으로 구분한다. 커뮤니티공원은 법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③

연결녹지의 녹지율은 **70% 이상**이어야 하며, 폭은 **원칙적으로 최소 10m 이상**이다.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이거나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 · 관리 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6.30, 2012.4.13, 2013.11.22, 2014.7.15, 2015.2.12, 2015.9.11, 2021.8.27>
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 관리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결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 녹지율(도시 · 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NoteBase

④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 관리 ·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8. 범죄 예방을 위한 주거단지의 세부 설계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지에 대한 주민의 소유감을 제고(提高)하고, 외부공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인다.

② 외부공간을 공적 · 반공적 · 사적공간으로 구분하는 공간체계를 확립한다.

③ 공공주택은 외관상 특성을 강화하고, 주변의 개인주택과 구분되도록 계획한다.

④ 영역성(territoriality) 개념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공주택을 주변 개인주택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하면 낙인과 고립감을 강화할 수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 주택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주민이 단지를 '우리 공간'으로 인식하면 외부공간의 이용과 관리에 관심을 갖고 수상한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소유감과 관리 책임감**은 주민의 자발적인 감시를 유도하여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② O: 공적·반공적·사적 공간을 구분하면 **각 공간의 이용 범위와 관리 주체**가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누구나 이용하는 통행 공간과 주민이 함께 쓰는 공간, 개별 가구의 공간을 구별하면 주민은 자신이 관리해야 할 영역과 외부인의 부적절한 침입을 알아보기 쉬워진다.

③ X: 공공주택의 외관을 주변 개인주택과 두드러지게 구분하면 공공주택이라는 낙인과 고립감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외관상 특성을 강화하고, 주변의 개인주택과 구분되도록'이 아니라 **주변 주택과 조화를 이루어 공공주택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는 주민이 자신의 주거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되도록 하는 방향이다.

④ O: 영역성은 일정한 공간을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관리·보호하려는 성향이다. 출입구나 낮은 울타리, 식재 등으로 **영역의 경계를 알아볼 수 있게** 하면 주민의 관리 의식이 높아지고 외부인에게도 그 공간이 관리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다.

NoteBase

문 19. 「건축법」 상 '대지의 조경'과 관련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 지은 것은?

○ 면적 (㉠)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 150, ㉡: 식재기준, ㉢: 입체 녹화
② ㉠: 200, ㉡: 조경기준, ㉢: 입체 녹화
③ ㉠: 200, ㉡: 식재기준, ㉢: 옥상 조경
④ ㉠: 150, ㉡: 조경기준, ㉢: 옥상 조경

정답 3번

㉠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과 건축물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른 조경 면제 대상이나 옥상 조경 등의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와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NoteBase

문 20. '최대시 이용자수'가 1,000명이며, 4계절형 이용형태를 보이는 '대한휴양림'의 수용력을 산정하고자 한다. 회전율을 0.5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 이용자수[명]'는?

① 140,000

② 200,000

③ 280,000

④ 4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4계절형의 **최대일률은 1/100**이며, 최대시 이용자수는 최대일 이용자수에 회전율을 곱한 값이다. 최대시 이용자수 1,000명에서 회전율 0.5를 역산하면 최대일 이용자수는 2,000명이고, 연간 이용자수는 200,000명이다.

계산 과정

1. 산정 관계: 최대일률은 연간 이용자수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하루의 이용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4계절형은 최대일률 1/100을 적용하므로, 최대일 이용자수는 연간 이용자수의 1/100이다. 여기에 회전율을 곱하면 최대시 이용자수가 된다.

2. 최대일 이용자수: 주어진 회전율 0.5는 **최대일 이용자수에 대한 최대시 이용자수의 비율**로 적용한다. 따라서 최대시 이용자수 1,000명을 회전율로 나누면 가장 붐비는 하루의 전체 이용자수를 구할 수 있다. 최대일 이용자수는 $\frac{1,000}{0.5} = 2,000$명이다.

3. 연간 이용자수: 최대일 이용자수가 연간 이용자수의 1/100이므로, 연간 이용자수는 최대일 이용자수를 최대일률로 나누어 구한다. 연간 이용자수는 $\frac{2,000}{1/100} = 200,000$명이다.

따라서 예상 연간 이용자수는 200,000명이며, ②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